

지역 매아리

부안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44억여원 투입

부안군은 올해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억여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38억 2100만원), 저소득계층 자가 및 임차가구 대상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100동 4억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10동 38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3가구 4800만원), 주택개량사업(90동), 빈집철거 지원사업(84동 2억 4000만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7동 1억 4000만원)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및 주거환경개선 공모사업(89억원) 선정을 위해 마을주민 등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안군 이재원 민원과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거경관개선 공모사업 등을 통해 부안이 거주지로서 매력과 활력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단풍미인대학 개강식 가져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정읍 단풍미인대학'이 7일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기술센터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2019 정읍단풍미인대학 교육과정'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풍미인대학은 교육생 130여명을 대상으로 5개 과정, 과정별 20여회의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친환경유기농업과 약용자생식물, 귀농귀촌, 전자상거래마케팅, 농산물가공창업 등이다.

올해 12기를 맞는 단풍미인대학은 정읍의 농특산물 브랜드인 '단풍미인'이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 농장경영과 과학영농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있다.

기술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기후 변화 등 시대 흐름에 맞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핵심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기술센터는 단풍미인대학 외에도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강소농교육 등을 실시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예산 1조원 시대 해법 모색

부안군, 공모사업 ·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향후 대응방안 논의

부안군은 7일 군청 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2019년 공모사업 추진계획 및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예산 1조원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는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계적 적기 대응을 통해 선정 ·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국 · 관 · 과 · 소장 등 간부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공모사업 추진사업 71건(1240억원 규모)과 2020년 국가예산 중점관리사업 45건(3096억원 규모)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과 부안상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내래 청소년 수련관 건립, 지역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2020년 여춘뉴딜 300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하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등이다.

특히 현 단계에서 전복이나 중앙부처에서 난색을 표하는 사업에 대



부안군은 7일 군청 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2019년 공모사업 추진계획 및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공모일정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는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한 길만 가보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길을 찾아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는 열정과 열의를 갖고 각각각층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모사업 ·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전북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예산 1조원 시대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미세먼지 걱정 없이 숲에서 힐링하세요"

정읍시, 두승산 등산로 정비 등 봄맞이 숲 정비 나서

정읍시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 정비와 함께 생태 숲 조성에 나서고 있다.

미세먼지 등 도시의 탁한 공기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등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며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먼저, 1억9800만원을 들여 두승산 등산로 13km를 정비한다. 두승산 내 사찰인 두승사에서 말봉으로 올라가는 구간 중 모두 세 곳에 목재데크(총 102m)와 난간(218m)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설계용역 등 관련 절차를 마쳤고 이달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6월 중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경사가 심하고 암반지형이라 오르기가 쉽지 않은 곳에 이들 시설을 설치해서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도 쉬엄쉬엄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 정비와 생태 숲 조성에 나서고 있다.

다. 또 1억9800만원을 들여 백제 가요 정읍사오솔길(이하 정읍사오솔길)1, 2코스를 정비하고 구간 내에 생태 숲도 조성한다.

1코스에 220계단의 목재 계단을 설치하는 등의 노선 정비와 함께 이 구간에 많은 소나무 사이사이에 1천100주의 단풍나무를 심는

다. 또 2코스 구간 중 동화농민회 명 100주년 기념담 앞, 내장호 주변에는 정자를 짓고 벤치(9개)를 설치하는 등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이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상반기 중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웰빙시대! 개암나무 열매가 뜬다

한국 헤이즐넛 연구회, 고창군 부안면에 가공사업장 열려

'헤이즐넛'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고창군에 가공사업장을 열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 헤이즐넛연구회와 고창군이 부안면 상암리 일원에서 '헤이즐넛 가공사업장' 개소식을 열었다.

헤이즐넛(개암나무 열매)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향과 맛이 고소하다. 특히 아미노산, 칼슘, 인, 철 등 각종 미량요소와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고, 최근에는 천연 합암치료 성분을 지니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 세계 4대 견과류로 꼽히고 있다.

가공 사업장에는 박피기 7대를 설치해 손쉽게 껍질을 벗기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헤이즐넛 연구회측은 향후 '헤이즐넛 오일' 추출기도 갖춰 식품이나 화장품 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헤이즐넛은 전국에서 약 40ha가량 재배되고 있고, 60여명의 회원이 한국 헤이즐넛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20여명이 고창의 농업인으로 올해 관내에서 8t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헤이즐넛 연구회 김영수 회장은 "한 번 심으면 80년 넘게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 노후까지 보장해 주는 연금나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며 "고창을 헤이즐넛 주산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축사를 통해 "산기슭 양지쪽에 관목으로 자라던 개암나무 열매가 고창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공사업장의 활성화를 통해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총력'

정읍시는 '2019~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쥬코앤씨와 TK트레블을 공식여행사로 선정했다.

시는 "정읍방문의 해에 지역자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이 많은 이들 여행사를 공식여행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개 여행사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내장산을 비롯해 육정호 구점초추계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게 된다. (쥬코앤씨(대표 김용진)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여행사와 2018년 경상북도 국외 전담여행사로 선정됐다.

의료관광과 중국인 관광객유치에 큰

강점을 갖고 있다.

TK트레블(대표 강일구) 여행사는 2018년 경상북도 국외 전담여행사로 선정됐다. 산악시찰과 홍릉, 신가골 등 동남아 인바운드 관광 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다.

시는 공식여행사에 타 시군보다 월등한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식 여행사와 힘을 모아 시가 보유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며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와 식품위생 등 관광객 수용 태세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경찰서, 직원 애로사항 경청에 정성 쏟아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이 인사이드로 전이한 직원 및 지리이동으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장방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청문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의 애로 및 고충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어내고 필요한 케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매일 아침 교대시간에 맞춰 현장을 방문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청문은 곧 감찰이라는 인식이 많았으나 다소 부담스럽다는 평가도 있지만 청문실에서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앞으로

지향해야할 청문의 방향표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원갑 경비계장은 고창경찰의 첫인상을 "직원간 유대관계가 너무 좋다는 인상을 받았고, 중심관리자로서 직원들과 잘 소통하여 주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서장은 "내부고객의 고충을 파악하지 못해 케어 하지 못한다면 주민에게 정성치안을 펼칠 수 없겠다"며 청문뿐 아니라 전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소통해줄 것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GIF SET 1호 | 750ml 2ea, 2ea/16%

GIF SET 2호 | 750ml 2ea, 1ea, 오프너/12%

GIF SET 3호 | 750ml 1ea/12%

GIF SET 4호 | 500ml 2ea, 2ea/12%

GIF SET 5호 | 375ml 5ea/13%

GIF SET 6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